

#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The Life Course of Poor Female Household Heads: A Qualitative Analysi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강사 성미애

박사과정 이재림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Ok, Sun Wha

Lecturer : Sung, Miai

Doctoral Student : Lee, Jaer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징  | 참고문헌               |
| III.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 | 부록 제보자별 빈곤 여성가장의 삶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and described the life course of poor female household heads. The data was gather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thirteen po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Most of poor female household heads grew up in poor families. They could not be educated properly due to their families' poverty and boy preference, and they moved to urban areas to become informal sector laborers. After the marriages, their living conditions became worse, because many of them got married to so lazy men who had alcoholic problems that were not willing to provide their families.

The po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were under difficulties owing to low income and unstable labor condition. The economic hardship disturbed the interaction with kins and friends. Although they got in touch with these people, they had uncomfortable feelings because they did not have enough resources which made

Corresponding Author: Miai S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770 Fax: 82-2-880-8770 E-mail: eliza\_s@hanmail.net

\*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these relationships reciprocal. Therefore, social welfare policy were essential to support the po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주제어(Key Words):** 빈곤 여성가장(poor female heads of households), 비공식 부문 노동자(informal sector laborers), 저임금(low income), 불안정 고용(unstable labor condition), 사회복지 정책(social welfare policy)

## I. 서론

우리 사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미군정 시대, 한국 전쟁, 산업화 과정, 후기 산업사회로의 변모를 거치면서 이념 및 가치관의 대립과 분열, 전쟁으로 인한 기간산업의 붕괴, 먹고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던 산업화 과정, 그리고 다양성을 화두로 삼는 후기 산업사회로의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이념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변화는 가정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내 구성원들은 어떤 측면의 사회적 변화는 더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하며, 또 어떤 측면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개인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을 헤쳐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집단은, 대처해야 할 힘든 상황은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은 거의 없었던 빈곤 계층이며, 그 중에서도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사회의 주류 가치로 작용을 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가장일 것이다.

원래 가장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형성된 가족임금에서 유래되었다. 가족임금은 모든 가족 성원이 밖에 나가 일하기보다는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가정하고 남성에게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한 임금을 지불하면서 부인을 집에 머무르게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Zaretsky, 1978: 211). 이 가족임금 개념은 이후 여성의 고용이나 임금은 생계 보조적인 것으로, 남성의 임금에 비해 낮아도 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이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성(性)에 따라 구분 짓는 성역할 분업 개념의 기반이 되었다. 결국 이 가족임금이라는 개념 때문에 남성가장이라는 용어는 없어도 여성가장이라는 용어는 구분되어 생기게 되었으며,

여성가장의 노동은 생계 담당자의 노동에 비해 보조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빈곤 여성가장은 자신이 속한 계층이 겪게되는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여성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겪게 된다.

이처럼 한 여성이 빈곤 여성가장이 되는 과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과정이지만, 이 속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인 빈곤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겪는 여성의 어려움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자 Mills(1975)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처럼, 빈곤 여성가장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사회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빈곤 가족의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는 주류 가족 대 비주류 가족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가족이 공존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두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복지대책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자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의 가족학 연구는 주로 도시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핵가족의 기능론과 역할, 권력구조, 결혼생활의 성공과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선 성장 후 분배의 사회분위기가 소득 재분배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1990년대 부터는 가족학에서도 빈곤 가족에 대한 연구들(김영희, 1996; 김주희, 1992; 김태현, 조희선, 1991; 김태현, 1992; 박미령, 1992; 박충선, 정영숙, 1997; 박혜인, 1992; 신화용, 조병은, 1996; 옥선화, 1992;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 2001; 옥선화, 성미애, 배희분, 이재림, 2002;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 1998; 정현숙,

서동인, 1996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의 성격을 갖는 이 연구는 빈곤 여성가장이 된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면서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시각으로 빈곤 여성가장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반추해 보면서 진정 원하는 복지제도 및 지원의 형태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현재의 빈곤 여성가장들의 삶의 과정을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빈곤 여성가장들이 말하는 빈곤자의 삶, 남편, 직업, 그리고 기댈 곳에 대해서 심층면접과 질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현실적인 복지 제도를 제언해 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빈곤 여성가장이 되는 사회적 과정, 가족적 과정, 그리고 개인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삶의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빈곤 여성가장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이나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 등 실천적인 차원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리라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제보자의 특징

### 1.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설정하고 그 모집단 내의 모든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양적연구의 '확률적 표집'과는 성격이 다른 '준거적 선택'을 통해 제보자<sup>1)</sup>를 선정한다. Goetz와 LeCompte(1984, 조용환, 1999: 27-28에서 재인용)는 질적 연구의 목적과 현상의 특성에 따라서 열 가지 준거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여기서는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전형적 사례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선행연구(옥선화 외 2인, 2001)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을 충족하는 여성을 전형적인 빈곤 여성가장으로 보았다. 첫째, 남편의 소득 없이 본인의 근로소득이 가족의 주 소득원인 여성, 둘째 직업은 단순직이며 일차적인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셋째 여성가장으로 생활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부양을 요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여성이 전형적인 빈곤 여성가장이 될 것이다.

제보자들에게 접근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특별시 소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중에서 제보자로 적합한 여성가장을 소개받았다.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면서 제보자로 부터 주변의 빈곤 여성가장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소개를 받은 빈곤 여성가장과는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면접을 요청하였고, 면접을 승낙한 여성가장에게 면접이 자연스러운 대화이며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렸다.

면접은 주로 제보자가 일을 하지 않는 일요일에 이루어졌다. 면접 장소는 제보자의 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집에서 면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학교 상담실 등 기타의 장소에서도 면접하였다. 면접은 200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1회의 면접을 통하여 제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 소요시간은 사례별로 2시간 30분에서 4시간이었다. 면접내용에는 제보자의 성장과정, 빈곤 여성가장이 된 과정, 가족 및 사회관계망과의 관계, 직업생활 등이 포함되었다. 면접내용은 제보자의 양해를 얻어 소형 녹음기에 녹음하였고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1) 질적 접근에서는 연구대상(research subject)이라는 용어 보다는 제보자(informant), 참여자(participant), 현지인(the native), 그 사람들(the people)이라는 용어를 즐겨 쓴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이라는 용어가 연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연구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제보자보다 우위에 서서 연구를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폐단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조용환, 1999: 22)

자료의 분석은 전사본을 반복하여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전체 면접자료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이 드러날 수 있는 주요 테마를 찾아내었고, 다시 전사본을 제보자별로 꼼꼼하게 읽으면서 각 제보자의 빈곤의 삶, 여성가장의 삶에 있어 중요한 테마를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나서 제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인지, 예외적 사례는 없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 2. 제보자의 특징

면접에 참여한 빈곤 여성가장은 총 15명이다. 이 중 이 연구에서는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3명을 제외한 12명과의 면접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제보자들의 개인적 특징은 <표 1>과 같다<sup>2)</sup>.

제보자들의 연령은 면접 당시 31세에서 49세이며, 30대인 박경숙 씨와 강선숙 씨를 제외한 10명은 40대였다. 결혼지위는 현재 이혼을 한 경우가 3명, 별거 중인 경우가 5명, 남편과 동거하는 경우가 3명, 그리고 사별한 경우가 1명이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식당 설거지 및 서빙, 공장 미싱사 및 미싱사 보조,

파출부, 보험설계사 등인데, 오랫동안 파출부 생활을 한 오미향 씨와 남편의 사고 이후 처녀시절 직업인 미싱사를 다시 하게 된 나영심 씨를 제외하면,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이 여성가장이 된 이유는 결혼지위에서 변화가 생겨 여성가장이 된 것이라기 보다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이 경제적 부양이 없거나 꾸준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남편의 폭력을 피해 본인이 가출을 했거나 남편이 사업 부도로 도피중인 경우도 있었다. 12명 중 7명은 남편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이 중 4명은 자녀들 또한 남편의 심한 폭력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제보자들은 자녀가 둘인 경우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셋인 여성가장이 3명, 자녀가 하나인 경우는 1명이었다. 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수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본문 중의 제보자 인명은 제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제보자별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1> 제보자의 개인적 특징

이름	결혼지위	연령(세)	학력	현재 하는 일	월수입(만원)	자녀
김보선	별거 상태에서 3년 전 이혼	45	고졸	식당 설거지	45	남(고2) 여(중3) 남(초4)
박경숙	별거 2년째	31	고 중퇴	식당 주방일	70	여(초3) 여(미취학)
한혜숙	별거 5년째	45	고졸	파출부	50	남(중3) 남(중1) 남(초5)
정영숙	별거 5년째	44	고졸	미싱사 보조(가내부업)	60	여(고3) 여(중2) 남(중1)
허혜순	7년 전 이혼	44	중졸	미싱사	65	여(고2) 여(중1)
최숙구	6년간 별거 후 2년 전 이혼	43	초졸	미싱사 보조	80	여(고3) 여(고1)
박명자	별거 10년째	45	대졸	사무보조	80	남(고2) 여(중2)
이경순	남편과 동거	44	중졸	보험설계사	100	여(재수) 여(재수)
오미향	남편과 동거	49	고졸	파출부	100	여(중1) 남(초5)
나영심	남편과 동거	47	중졸	여성의류 미싱사	60	남(재수)
강선숙	별거 2년째	37	고졸	공공근로(동사무소 사무보조)	60	남(초4) 남(미취학)
정영선	별거 상태에서 7년 전 사별	42	초졸	우유배달원	73	남(고3) 여(중3)

### III. 빈곤 여성가장이 된 과정

빈곤 여성가장에게 '빈곤'과 '여성가장'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 중산층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계속 자란 박명자 씨나 남편이 보석 도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뒤늦게 서울로 온 강선숙 씨, 친정 어머니가 세를 받아서 살았던 정영숙 씨, 고향 땅에서는 나름대로 잘 살았고 믿음의 가정으로 모범이 되었다는 오미향 씨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들은 '우린 안 해 본 게 없어요'라는 박경숙 씨의 말처럼 이미 빈곤 가정 속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들의 삶은, 저농산물 가격에 따른 농민의 빈곤화가 농민층의 이농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이들 이농 인구가 도시의 산업노동자나 빈곤층으로 전화하여 농촌의 빈곤을 도시로 연장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는 한상진(1993: 123-124)의 분석처럼, 이농이 중요한 생애 전이가 되었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제보자 중 김보선 씨와 한혜숙 씨 친정 가족은 빈곤 상황을 극복하려는 가족전략의 한 일환으

로 농촌을 떠나 서울로 이주하였고, 박경숙 씨의 경우에는 의붓아버지의 폭력이 서울로 야반도주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빈곤 상황도 한 몫을 하였다.

반면, 최숙구 씨와 나영심 씨, 정영선 씨, 허혜순 씨, 이경순 씨, 오미향 씨는 빈곤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한 일환으로 단신으로 이농을 하였는데, 친척 언니의 소개로 병원 취사부에 취직한 이경순 씨와 사무직에 취직한 오미향 씨를 제외하고는 공장 노동자로 취직하였다. 이것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보여주는 예로, 당시 노동집약적인 수출지향 공업화 정책으로 저임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사회 분위기를 이들의 삶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영숙 씨와 강선숙 씨는 모두 남편의 무능력이나 부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식가족을 이끌고 뒤늦게 서울로 온 경우인데, 이러한 사례에서는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적응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강선숙 씨는 꼭 재기해서 대구로 가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경험한 원가족에서의 빈곤

<표 2> 제보자 이주 및 교육 중단 배경

이름	출생지	이주 동기	교육 중단 배경
김보선	경북 상주	친정부의 직업이동으로 3세에 서울로 이주	친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 못 가게 하여 몰래 야간중고 졸업
박경숙	전남 곡성	친정모가 의붓아버지 구타를 피해 자녀와 서울로 야반도주	본인의 가출로 야간고 중퇴
한혜숙	전남 강진	친정 가게 부도로 서울로 도망 옴	해당 없음 (고졸)
정영숙	경남 김해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서울로 도망 옴	해당 없음 (고졸)
허혜순	전남 해남	중졸 이후 간호원양성소 가기 싫어서 친구와 서울로 가출	남동생 교육 위해 안 보내주어서 중졸
최숙구	충남 논산	식모살이 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	못 살아서 형제 모두 초졸
박명자	서울	해당 없음 (서울 출생)	해당 없음 (대졸)
이경순	강원 원주	취업 위해 서울로 이주	여자라서 학교 안 보내주어서 중졸
오미향	전남 광양	취업 위해 서울로 이주	오빠가 간호학교 진학을 반대하여 고졸
나영심	전북 김제	취업 위해 사촌언니와 서울로 이주	오빠의 교육을 위해 자진포기하여 중졸
강선숙	대구	남편의 사업부도로 서울로 도망 옴	해당 없음 (고졸)
정영선	충북 괴산	취업 위해 여동생과 청주로 이주 - 남편 구타 피해 서울로 가출	못 살아서 초졸. 그러나 남동생이 직장 다니면서 그 밑의 동생들은 중·고·대학교까지 보냄

한 생활은 낮은 학력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극복이 되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비슷한 계층의 남편과 결혼하면서 빈곤이 자녀세대로 전이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 1. 내 인생의 실패작은 니네 언니 학교를 못 보낸 거다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를 살펴본 연구(박재홍, 1999)에서도 기성세대의 생애경로는 학력을 기준으로 양분된다고 하였듯이, 본 제보자들도 못 배운 것이 '한'으로 작용할 정도로 삶의 굴곡의 큰 원인 중 하나로 학력을 들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박명자 씨, 별다른 장애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혜숙 씨, 정영숙 씨, 강선숙 씨, 본인의 가출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간에 중퇴한 박경숙 씨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들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지만 당시 만연했던 공핍과, '여자가 배워서 무엇하냐'라는 부모의 인식 때문에 원하는 바대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다.

먼저 빈곤 수준을 살펴보면, 당시 집안의 부양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몰래 야반도주를 했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박경숙 씨와 최숙구 씨의 삶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아무 것도 없이 어머니와 의붓동생과 함께 서울로 야반도주를 했던 박경숙 씨는 그 당시 공핍된 경험 때문에 지금도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며, 결국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가난이 싫어서 가출을 했다고 하였다. 또한 최숙구 씨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돈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사춘기 때 서울 딱 처음에 와 가지구 뭐 밥이구 쌀이구 먹을 나이잖아요. 사춘기 때 흔히 말하자면 저기 뭐 텔레비전 보면 라면만 먹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밀가루 음식만 먹고, 진짜 그런 거 진짜 많이 먹었다. 그 때, 잡곡 혼합쌀, 누은 보리쌀 그것만 먹고 자랐어요. 지금도 전 국수는 안 먹어요. 밀가루 음식도 잘 안 먹고, 그게 싫어서 가출하고 그걸 또 우리 엄마가 잡아다놓으면 가출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못 나왔어요. 중학교는 어찌 어찌해서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와 가지구 완

전히 가출해 버렸어요. (박경숙 씨)

국민학교 졸업장도 못 받았어. 왜그러냐면 졸업장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줘 갔구. 이백원을 안 줬어. 사백원인가 이백원인가 안 줬어요. 그래서 못 받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가지구... (최숙구 씨)

이런 공핍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경제적 배경이 되었다면, 가부장제 하에서의 남아선호 사상도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 저소득층 가족일수록, 농촌 가족일수록, 교육기회에 있어 아들과 딸의 차별이 컸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자들(김수영, 2001; 김주숙, 1990, 1994)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 연구에 참여한 제보자들도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과 함께 가족의 생계부양은 남성의 역할이므로 '여자가 배워서 무엇하냐'라는 부모님의 인식에 따라 남아형제보다 더 심각하게 가족의 빈곤을 경험하면서 자랐다. 야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보선 씨 경우에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했으나 여자의 일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눈을 피해 학교를 다녔다. 중학교를 졸업한 허혜순 씨도 남동생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호원 양성소를 보내려고 하여 결국은 무료로 집에 있다가 가출하였다고 밝혔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경순 씨도 어려운 가정형편 뿐만 아니라 여자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였고, 이처럼 못 배운 한 때문에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염원을 보였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게 했어요. 화장실 갔다가 가방 갖다 넣고 몰래 몰래 학교 다녔어요. 팔자가 그래갖구... 야간 다녔거든요. 주간에 일을 하고 아버지가 뭐 전혀 안 돼주니까... 그렇게 저를 갖다가 야단을 치고 구박을 하고... (중략)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지금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뭐 나쁜 짓 하러 다녔던 것도 아니고 공부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깐 그게 힘들었어요. (중략)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애를 그래 못 살게 그러니까 공부만 안하고 그냥 가만 집에서 살림만 배워도 이뻐하겠단 하더라. (중략) 개(남동생임)는 워낙 본인

이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서 개는 또 우리 아버지가 보내려구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가 안 할라구. (김보선 씨)

고등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랑 엄마랑은 동생을, 남자애를 먼저 가르켜야 된대요. 인제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으니깐요. 해 갖고 저를 간호원 양성소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눈물이 많아서 그거 힘들어요. 고등학교에 저 한 달만 보내줘도 좋으니까 한 달만 보내달라고 사정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구요. (그게 제일 결정적인 계기였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인제 그냥 집에 있으니까 좀 무료하잖아요. 한 일년만 있으면 내년에 다시 보내준다 그랬는데 애들도 그렇고 좀 그랬더라구여. 어떤 애가 우리 그냥 도망가자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그래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 다시 또 한 1년 지나서 집에 가서 살아보려고 정리를 했는데 그게 또 인제 안 되더라구여. 그니까 모든 것이 인제 또 여건이 안 맞으니까 이미 모르겠다 그냥 다시 또 가자 그러구 하면서 또 올라왔죠. (허혜순 씨)

시골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또 그때는 저 막 울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안 보내준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고 그래가지구 못 가고 그냥 서울에 직장...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이경순 씨)

이와 같이 제보자들에게 있어 학업중단은 대부분 부모의 빈곤이 재생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다. 학력으로 계층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사회에서 저학력은 직업선택의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곧 계층 상승의 일차적인 가능성마저 차단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제보자들도 이런 이유로 배우지 못한 한을 토로하였는데, 다른 제보자에 비해 젊은 박경숙 씨는 본인의 가출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사무실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와 가지구 완전히 가출해 버렸어요. 근데 여태까지 후회는 한번도 안 했어요... (중략) 근데 일 하려고 하니까 어디가면 학력이 딱 나와 버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땀에 요즘 많이 울죠. 고등학교 안나왔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디일단은 사무직을 갈려고 그래도 일단은 그거부터 물어보고... 그니까 전 번에 이런 일 있었어요. 이 앞전에 12월 달에, 동사무소에서 얘기해 가지고, 그 계장님을 직접 소개시켜줬어요, 사무실을. 그냥 조그만한 데 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속였지 졸업한 걸루. 면접까지 다 보구 출근한다구 얘기했는데 도저히 속여 갖고 인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 갖고 거짓말하고 인제 안가고, 다른 동생을 소개시켜 줬거든요. 근데, 거기 갔으면 좋았지. 사무실이면 일단은 배울 것도 많잖아요. 배울게 많고 좋은데... 학교 때문에 짚린 데가 많거든요. (박경숙)

또한 이러한 낮은 학력은 동질혼이 당연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저학력·저임금의 빈곤 상황에 처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됨으로써 이들이 빈곤 여성가장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딸의 적성과 무관하게 간호원 양성소에 보내고자 했던 허혜순 씨의 아버지도 딸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학업중단인 것 같다고 후회를 하였다. 나영심 씨도 남동생을 진학시키고자 했던 부모님의 뜻을 알고 본인 스스로 진학을 포기했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할 기회를 차단하였고, 결국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으로 이끈 것은 아닌지 후회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조금 커서... 동생한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실패작은 니네 언니 학교를 못 보낸 거라고. 지금 와서 후회를 하시는데 조금 그래요. (허혜순 씨)

그 때 엄마, 아버지 저녁에는 그 때는 어려우니깐 단칸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그럼 우리가 잠든 줄 알고 엄마, 아버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전주로 갔고,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바로 밑에. 그면은 나는 딸인데 더 가르키면은 남동생은 못 가르킨다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걱정을 하니깐 내가 그냥 포기했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고만들테니까 남동생을 가르키구. 오빠 전주로 갔으니까 오빠 가르키라구. 내가 나온다구. 내가 포기를 한 거죠. 엄마, 아빠는 가지 말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사실은. (중략) 좀 더 배웠으면 좀 저기 좋은 조건으로 시집을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  
게 내 저기려니 하고(한숨). (나영심 씨)

이처럼 낮은 학력으로 인한 설움과 한은 제보자  
들이 중년기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초졸과 중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제보자들  
은 한결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피력  
하였는데, 이러한 바람을 통해서도 이들 빈곤 여성  
가장에게 학업중단이 이후의 생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동대문 시장에서 일 배웠어요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한 후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보통 취업 전선에 나가게 된다. 친정 아  
버지가 딸의 취업을 반대했던 정영숙 씨와 박명자  
씨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들은 학업을 중단한 지 1  
년 이내에 취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취업은 빈곤 상  
황을 타개하고자 했던 가족과 제보자 본인이 불가  
피하게 선택해야 했던 측면도 있었다.

최숙구 씨의 결혼전 직장 이동 과정은 당시 빈농  
가정 출신의 딸이 선택해야 했던 전형적인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최숙구 씨는 식모살이부터 시작  
해서 가방 공장, 염색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용돈을 제외한 돈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  
면서 살았다.

국민학교 졸업 맞은 것이 열 네 살이니까, 열 다섯  
살... 한 열 여섯 살 때나 올라오고... (중략) 그 전  
에는 저저까지 했었어요. 뭐지? 요새는 파출부라고  
하지. 그 전에 식모살이 했었어요. (중략) 동네 저  
기로 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할머니  
하나 모시고, 그 할머니 서대문구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혈압이 높으니까 진찰해 주고 청진기 췌  
고 혈압 재 주고 죽도 췌 주고, 그 집은 부자라서  
월급 그 때 5천원 받았었어요. (중략) 그랬다가 가  
방공장에 가게 된 거지. 도와 준거는... 월급 타 갖  
고 죄다 부쳐준 거밖에. 우리 엄마 혼자 고생하시  
니까... 맨 처음에 내가 직장생활 할 때 5천 8백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8백원 쓰고 5천원 부치고... (중  
략) 염색공장에 다녀서... 영어를 알아갖구 인제 앉  
아서 기장같은... 기장이라고 그래요. 염색실에서

이렇게 남바랑 찍고 노트에다 기재하고, 파운드 기  
재하고 그러는거... 그리고 색상, 화이트니 레드니  
이래 가며 다 적어서 기재하는 거 그거 했었어요.  
그 때 당시 월급을 몇 십 만원 받았어. (최숙구 씨)

특히 제보자들이 노동현장에 가담하기 시작했던  
당시의 한국사회는 노동집약적인 수출지향공업화 정  
책으로 저임금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산층 교육자 집안 출  
신으로 중학교에서 잠시 임시교사를 하였던 박명자  
씨, 공기업에서 사무직을 담당했던 정영숙 씨, 친척  
의 소개로 은행에 근무하였던 한혜숙 씨, 사무보조  
직을 했던 강선숙 씨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들은 결  
혼 전에 단순 기술직과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였다.

(그런 서울에서 일을 하셨던가요?) 그래서 배운 게  
저기 그 의류업체 거기, 거기 인제 동네 친구 있는  
데를 데리구 가 갖구 거기서 인제 거기 동대문 시  
장에서 일을 배웠었죠. (중략) 그랬으니까 살았죠.  
(허혜순 씨)

그 때도 우리 또 친정도 어려웠으니까 그 당시는.  
(중략) 그래가지구 방 얻어서 자취하면서 했죠.(중  
략) 처음에는 그러니깐은 인제 그 전에 왜 잠옷 한  
창 유행할 때요. 잠옷 했었어요. 그 때는 맨 밑에서  
심부름 해주는 일을 했죠. 처음에는. 영등포구 신길  
동에서. (그럼 월급을 받으시면 꼬박 꼬박?) 집으로  
부쳐줬죠. 인제 동생들 학교 가르키라구. 내가 못  
배웠으니까. 밑에 있는 동생들 주라구 집으로 보냈  
었죠. 내 용돈만 내가 떼구(웃음). (나영심 씨)

이처럼 이들은 비공식 부문에 취업하면서 임시적  
이며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면  
서 대부분 빈곤 상태에 놓이는 빈곤층(정동익,  
1987: 32)처럼 부모의 빈곤을 세습하고 있었다.

## 3. 차리리 결혼을 안 했더라면 더 니았죠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규범적인 것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여성이 가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선택이 아닌 상황의 힘이 컸다. 즉 아직까지 가정생  
활 이데올로기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가장  
이 된다는 것은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  
해서 결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보자들이 명시한



여성가장이 된 계기는 결혼지위의 변화나 남편의 가출, 질병, 사고, 부도 등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결혼초기부터 여성가장과 마찬가지로의 생활을 해 왔다. 한상진(1993: 128)은 도시 빈곤층은 제조업, 건설업 등의 임시고, 일고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로 구성되는 '불안정 취업층'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건축업을 하면서 결혼 초부터 58평 아파트에 살았다는 한혜숙 씨 남편이나 의류사업 부도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박명자 씨의 남편, 보석 도매업으로 부도를 내고 지금도 새로운 사업만 구상하고 제대로 된 부양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강선숙 씨 남편을 제외한 모든 제보자들의 남편들 또한 비슷한 학업 배경이나 직업 배경을 가진 도시 빈곤층 출신이었다.

제보자들이 여성가장이 된 이유는 크게 남편의 부도나, 사고 때문에 된 경우, 그리고 결혼 초기부터

여성가장이 된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박경숙 씨, 한혜숙 씨, 박명자 씨, 강선숙 씨의 경우는 남편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부도를 내어서 어쩔 수 없이 여성가장이 된 경우였다. 나영심 씨 경우는 남편이 건축현장에서 사고를 당하면서 여성가장이 되었다. 그 외 제보자들은 결혼 초기부터 부양자 역할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해왔다. 이 중 박명자 씨와 나영심 씨는 현재의 상황이 고달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부도나 사고 등 외적인 사건에 귀인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남편의 부양의지가 작용을 하고 있었다.

아빠도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이제 하는 일이 바깥 일이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다보면은 노가다라 그러지요. 인테리어 막 하다 보면 공사장에서 막 뛰어다니면 사람들하고 우여곡

〈표 3〉 제보자 남편의 특성

이름	남편의 특징	남편의 직업 경력	여성가장이 된 이유
김보선	폭력, 외도	건축일(문짜 만드는 일)	남편이 집에 돈을 가져오지 않음
박경숙	사업실패로 구치소 수감	매점-과일장사-의류사업(부도)-구치소-연락 안 함	남편이 미워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함
한혜숙	사업실패로 구치소 수감	건축일(부도)-구치소-연락 안 함	남편이 집에 돈을 가져오지않음, 남편의 가출
정영숙	폭력, 의처증, 게으름	노동일-연락 안 함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서울로 도망 옴
허혜순	폭력, 도박, 이기적	트럭장사-일 안 함	남편이 일을 하지 않음
최숙구	폭력, 외도, 무책임	공장보조-화물차-택시-골재(부도)-헬스클럽 경리	남편의 가출
박명자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님, 사업실패	인테리어 사업-의류 사업(부도)-해외도피	남편이 사업실패로 해외도피
이경순	과음, 폭력, 현재 간경화 말기	운전기사(공장-자가용)-용역설비가게(부도)-일 안 함	남편이 과음으로 일을 못 함
오미향	알콜중독, 폭력	타일 붙이는 일-일 안 함	남편이 과음으로 일을 못 함
나영심	사고로 장애, 사고 후 나약해짐	선반/용접-일 안 함	남편이 건축현장에서 사고를 당함
강선숙	사업실패, 노동일 안 함	보석도매(부도)-노동일-호도과자 노점-구치소-일 안 함	남편이 사업실패 후 재기하겠다고 돌아다니기만 함
정영선	폭력, 과음, 자살	철근일-연락 끊김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함

절이 많았어요. 그니까 본인도 생각갈지 않게 사회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울분도 있고 하여튼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라는 거에 자근자근 재밌게 살 거들이 없이 시작할 때부터 와 하고 불어닥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큰 아이를 낳았는데 큰 아이가 아마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끈이었다고 생각해요... (중략)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안 만나고 자기한테 맞는 여성을 만났으면 또 다른 길로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를 만났기 때문에 처갓집에서 올바른 대우를 잘 못 받고 주눅이 들고 또 저한테 이렇게 뭔가 내세울 만큼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돈을 잘 벌어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항상 있었던 거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자기가 뭔가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맨날 돈으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박명자 씨)

원래 심성은 착해요. 사람은 원래 착한데... (중략) 아직까지는 정이 있으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구...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할라고 노력은 하죠. 안 할라고 할 사람은 아니구 할라고 노력은 하는데, 자기가 안 따라주니까 하루 종일 서서 하는데, 뒷꿈치 힘이 없으니까. 다리가 이제 김스를 해 놓으니까 저기 하잖아요. 삐딱 말랐어요. 그래 놓으니까 힘이 들어서 안 하죠. 안 할려고는 안 하죠. 뭐든 해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맘대로 안 되니까. (나영심 씨)

반면 박경숙 씨, 한혜숙 씨, 강선숙 씨는 남편이 구치소에 갔다온 이후로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아서 눈도 마주치지 싫다고 하였으며, 특히 강선숙 씨 경우에는 남편의 부도 이후 처음 겪는 빈곤층 경험이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한 사람 땀에 계속 이렇게 일련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짜 사람 나오는 거 보기 싫더라. 거기서(구치소) 빠져나오는 거 서 있었는데 나오니까 정이 안 가... (중략) 우리 부부관계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이 떨어지니까 미우니까 일단은 미우니까... 자체로도 싫으니까... 신뢰성이 안 돌아오니까... 문을 안 열어 줬죠, 우리 엄마가 아예,

(중략) 이혼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애들이 불쌍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요. (애들이 없었다면) 벌써 했지. 그 때 해 버렸지. 그 때 끝나... (박경숙 씨)

그 때만 해도 애 아빠가 잘 나갔으니까... 잘 나갔으니까 괜찮다 그랬죠... (중략) 아빠가 없어서 뭐 불편한 점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전부터 우리가 다 하고 살았으니까. 애들이... 그죠, 정말 그렇고 하면 찾아올텐데 한 번이라도... 자기도 이제 염치가 없으니까 못 오는 거죠. (중략) 남자는 아이고 지겨운 거 같애. (한혜숙 씨)

지금도 싸워요, 쳐다만 보면... 음... 되게 심한지 모르지만 죽이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이렇게 보고, 쳐다보면 막 싸우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렇게 욕을 퍼부으면서 살면서도, 또 돌아서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만 참아야 됐으면 참았으면 됐는데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보면 그냥 그대로 막 퍼부어버려.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욕도 처음에는 안 했는데... 그냥 할 줄 몰랐는데 한번만 하니까 쉽게 나가더라고. 쉽게 나가... (중략)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도 사람이 되게 착해요, 착하고 남의 말도 잘 듣고, 그렇게 마음이 여련데, 제 말은 안 듣는 거야. 인제. 그리고 또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 고집이 있어갖고 자기가 하는 주장대로 이렇게, 앞에서는 안 하는데, 뒤에서는 다 이렇게... 그러다가도 끝에는 또 당하고... 그게 몇 번 씩이나 그랬으니까. (중략) "자기가 뭐 해 준 게 있다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다. 니가 내 마음 떠난 거 안다"면서 그런 소리 맨날 해. "언젠가 라면 가겠지" 그런 소리 잘 해요, 우리 아저씨가. (중략) 우리 신랑 막 나 먹던 손가락에 해서 같이 먹는데 그게 제 입으로 안 들어가요. 좋은 감정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지. 근데, 싫으니까 그게, 그게 안 되더라고. 인제. 근데 아니 여기 인제 완전히 헤어진다 안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하겠고... 얘기 때문에... (중략) 이 사람이 언젠가는 해주겠지 해 주겠지. 그 기대는 있어요, 제가. 그거마저 버리면 저는 못 헤어날 것 같고. (강선숙 씨)

결혼 초기부터 부양자 역할을 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결혼지위와 무관하게 여성가장의 역할을 담당해왔던 나머지 체보자들은 위의 유형과는 달리 남편의 특성으로 '술', '노름', '폭력', '하루살이', '게으

름', '욕', '바람' 등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꼽았다. 이들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나 술 주정 때문에 고통을 당했으며, 무엇보다도 남편이 부양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결혼생활 자체에 대해서 후회가 많았다. 특히 이들 제보자들은 남편이 부양자 의식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문제시하였다. 실제 이 유형에 해당되는 제보자들의 남편들은 가족들이 겪는 생활고에는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일신만 챙기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가정의 책임이 없더라구. 생활비라든지 뭐 있는 거 전혀... 이래 뭐 그렇더라구요. 사람이 이렇게 하루 살이처럼... (그래도 근 20년을 사셨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꾸렸거든. (정영숙 씨)

차라리 없었으면 난 더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차라리 없으면 정말 더... 정말이에요.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래요. 이 부부생활도 그래요. 부부생활도. 밖에 나가서 자기 일 멋대로 즐기고 다니고, 집에 오면 방 한 칸 짜리 다락방, 다락에서 혼자 TV, 그 쪼그만 다락에다가 TV 갖다놓고 혼자 거기 올라가서 자고, 항상 확대하고 우리 식구들을. (이경순 씨)

택시기사 할 때만 통장으로 제대로 들어왔지 그 다음에는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애들도 애들이... 아빠를 안 찾는 이유도 하도 때려 가지고, 애들도 어렸을 때 막 집어 던지고 그랬었어요. (중략) 없는 게 낫지. 나 저... 심장병 있었어요. 그 때 들어오면은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남편 없다고 사람들이) 깔보는 건 있지. 깔보고 돈 한푼도 안 빌려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에이 없는 게 나아. 맨날 소리나 지르고. (중략) 이혼하는 게 낫지. 이혼할라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낫지. (최숙구 씨)

아유 저 그래서 결정적인 동기가 그거예요. 일할 한 적이 없어요. 일을 하면 한 두 서너 달 운전을 하더라도 가서 한 3개월을 못 넘기죠. 아니 승용차를 해도 그렇고 자리 마련해서 넣어주면 몇 달 있다 딱 나오고 몇 달 있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쌀이 없어 밥을 안 해줘도 굶어도 일 안 할 사람이니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다 싶어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니까 중매로 소개해 갖고 한 두 달에 서두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가 더 많다고 봐요.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봤으니깐. (허혜순 씨)

이처럼 무능력하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남편을 대신하여 '저도 참 여장부가 됐지' 라는 오미향 씨의 말처럼, 이 유형에 속하는 제보자들은 생존하고자 치열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온 반면, 이들의 남편들은 노동 능력과는 무관하게 삶에 대한 열망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후에는 결국 과음으로 인해 노동 능력마저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래 과음은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간경화나 식도 파열 등의 질병으로 연결되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남편들은 술 때문에 불안정한 일거리마저 끊기는 경험을 겪었다.

근데 술 때문이에요. 원인은 다 술 때문이에요. 술 때문에 어디 취직을 하면 일주일 못 버티고 나오고, 왜냐하면 저녁에 술을 많이 퍼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술이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고. (이경순 씨)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일을 하나면은 인제 오다를 하나 따서 일을 시작한다 하면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기는 잘 불러모아요. 그런데 신용이 있어야지요. 술 먹다보면 못 나가잖아요, 일을 못 나가요. 보통 사람들은 술 먹고 곤한 잠 자구 딱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저녁 내내 술을 먹고 나를, 자기 잠 안 자고 술 먹었지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저 보러 거짓말로 자기 술 먹었다 변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끔 하는데 저는 또 고런 면에서 굉장히 아둔해요. 이렇게 좀 요령을 못 파우는 성격인데, 또 남편이 하라니까 어떤 때는 정말 아팠다는 등 어떤 때는 그 때 그 때 상황 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1년 다니고 1년 2년 지나다보니까 이 사람의 신용도는 완전히 바닥이 난 거죠. 바닥이 났어요. 술로 인해서 일도 못한다 하고 그 사람 밑에 있다는 밥도 굶어 죽겠다라는 등 다 떠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도 없지만 술로 인해서 자기 일하는 모습이 완전히 실마리를 찾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됐어요. (오미향 씨)

이처럼 이 유형에 속하는 제보자와 남편들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

		노동능력	
		(-)	(+)
열망수준	(-)	I. 만성적 빈곤	II. 나태한 빈곤
	(+)	III. 불행한 빈곤	IV. 박탈된 빈곤

\* 출처 : 김영모(1990: 40)

〈그림 1〉 김영모의 빈곤유형

데, 이러한 차이를 열망 수준과 노동 능력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김영모(1990: 39-40)의 빈곤유형(그림 1)을 토대로 비교해보면, 제보자들은 비교적 박탈된 빈곤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편들은 결혼 초기부터 노동 능력은 있으나 열망수준은 낮은 나태한 빈곤형을 보였고, 이후에는 과음 때문에 노동 능력마저 상실하고서 만성적 빈곤형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겪고 있었다

또한 <표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남편의 음주는 심한 폭력이나 욕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유형에 속하는 빈곤 여성가장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으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는 등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결혼해서도 자꾸 만나구. 그것만해도 저한테 술 먹고 주사 부리고 노름하고 또 때리고 막, 완전히 폭력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삼일부터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삼일 딱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부터. 침에는 어떻게 얼핏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스쳐지나가듯이 그래서 실수로 그랬나보다 그러구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제 점점 점점 자꾸인데 뺨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구 그러구 나중에는 세월이 갈수록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건축업을 하다보니까 집에 연장이 많았어요. (김보선 씨)

구타를 하고 술버릇이 나쁘다라는 거, 술 먹으면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간죽간죽거리는 거, 잠을 안 재워주거든요, 구타를 하고,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그냥 굶어요. 딱 앉혀놓고 술을 먹거든요, 앉혀놓고 술 먹고 자다가 꼬박 졸면은 이게 바로 날아오는 거예요. 재떨이고 뭐 컵이고 뭐 바로 날아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애 낳고 별로 이렇게 몸이 온전치도 않고 부서부석한 사람을...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인제 애기를 딱 낳아 가지고 왔는데 애기를 눕혀놓으면요, 그 애를 그렇게 보복을 하더라고요. 그 애한테, 나 미운 그걸 애한테다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 이런 거구 모 붙잡힌 대로 베개고 뭐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 애기를 내 뒤에 감춰놓고 키웠어요. 애기를, 눕힌 애기를, 눕혀놓고 이래 놓고, 항상 이래놓고 오줌도 못 누려갔어요, 술 먹을 때는, 자기가 오줌 누러 가면 나도 그 때 가서 오줌 누고, 또 그 와중에 저 뭐야, 기저귀도 빨아서 막 널어놓고, 이러면서 인제 애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저를 벽에도 머리를 부딪혔는지, 얼마나 부딪혔는지 머리에 혹이 이만큼 부어버렸어요. 혹이 이만큼 났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부었는지 그때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머리가 막 전기가 와요. 머리가 어떤 때는 전기가 찌릿찌릿하면서 아! 할 정도로 오는 그 증세가 있어요. (오미향 씨)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의 결혼생활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상처도 안겨준 것이기 때문에 빈곤 여성가장이 된 유형에 관계없이 제보자들은 자신들의 배우자 선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제보자들 스스로 표현하기를, “두 달도 채 안 됐어요”, “그 때 뭐가 켜는지 눈이 뻗지, 내가”, “내가 나이 서른이 다 되니까 우리 집에서는 급하잖아요 친정에서는... 여자는...”, “우리 시동생이 해라하는 바람에 내가 얼떨결에 했는데...”, “남자 한번 사귀어 보지도 못하고 처음 좋은 감정인지 모르고 얼떨결에 철 몰라 가지고”, “여자만 많은 집에 살다보니까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 좁았어요” 등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불리 결혼을 했다고 밝혔다.

선 보고 두 달도 채 안 됐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 이렇게 파악하기도 전에, 서둘렀죠. 집에서만 있다보니까 이래 사람 교제를 잘해주니까 결혼 후에도 그런 줄 알고... 고향도 서로 너무 멀었구요. 그래서 확인해 볼 저기가 없잖아요. 너무 교제기간이 짧으니까. 그래 가지고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결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랬으면 차라리 그 여자랑 결혼했단가 그랬어야지. 둘 다 불

행한 꼴이 됐어요.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만 데로 (시집을) 갔긴 갔는데도 나랑 결혼해서도 이 남자가 자꾸 전화를 하니가 그 쪽도 애기 넣고 살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가정도 파괴된다고 그 쪽 딸이 전화할 정도로, 아저씨 뺨에 우리 가정 파괴된다고 전화가 올 정도로 그렇게 결혼해서도 자꾸 만나고... (김보선 씨)

소개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했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외모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중략) 딸린 자식이 없더라고요. 한번 결혼을 해서 인제 실패를 했대라고 하면서 이혼 서류 자기가 그 했다는 그거까지 다 건강진단서까지 다 보이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직장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노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략) 그러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굉장히 어찌보면은 건전해 보이더라고요. 술 먹는 거 자체는 제가 몰랐었고, 한번 딱 선을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맘에는 하나 안 닿는데, 결정적으로 한번 저한테 보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그냥... 소박하더라고요. 세상 속의 남자들보다는 굉장히 심성이 여리고 소박하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한 달만에 결혼을 했어요. 자기 그 목사님, 형님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족들하고 인제 간단하게 예식을 치루고 살면서 그때부터 바로 구타를 당했어요. (오미향 씨)

그 때 딱 끊고 나 결혼 안 할래 하고 했었는데, 아휴 죽는다고 막 그리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러면 나 생각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 혼자 저 명동성당에 가 가지고 기도도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알면, 그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큰 흥이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알면 어떡하나,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너무 너무 어리고, 너무 순진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게 아니다 하면서도 끌려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연인끼리 좋은 감정, 그런 거를 하나도 못 느끼고 결혼했어요. (이경순 씨)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웃음). 여자만 많은 집에 살다보니까,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 좁았어요. 또 집안에 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

았어요. 다 안정적이고, 다 하면은 남한테 다 폐 안 끼치고 알뜰살뜰 다 사는 줄 알았지 아무... 저희 집에는 그런 계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 남자들은 여자 말을 다 잘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박명자 씨)

이처럼 여성가장이 된 과정에는 남편의 문제 행동이나 사업부도 등 남편으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결혼생활 자체에 대해서 후회가 많았다. "반대할 때 들었을 걸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잘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살다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20년이 돼 가지고 지금 생각하지만 엇갈린 만남이에요. 엇갈린 만남이지만 이거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산 거예요", "결혼을... 차라리 결혼을 안 했더라면 더 나왔죠" 등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제보자들은 본인의 결혼을 빈곤 '여성가장'이 되는 첫 단추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빈곤 여성가장들은 불행한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였다. 제보자들 중에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로 장기간 별거 중이거나 남편으로부터 유기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거나 이혼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부분 주위의 만류 및 종교 교리나 자녀를 예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다.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는 여자는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 뭐 삼 년 해갖구, 맨날 그런 것만 들 어갖구 결혼 초부터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이게 뭐 의논할 상대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한테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좋은 날 있을 테니까 참고 살라 참고 살아라.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 그 때 안 참고 산 게 나을 뻔 했어요. 그랬으면 나도 사실 나도... 이렇게 많이 아프진 않았거든. (김보선 씨)

인제 이혼 할라고 딱 했는데, 우리 수진이는 그걸 못 느꼈던가 보지 할머니 집에 계속 살다가, 아빠가 나쁘다고 맨날 그러면서 엄마 바보라고, 주위에 서는 당장 이혼하러 가자고 내 손을 잡고 가드라

고. 그런데 수현이는 가만히 있드라고. 종우는 하는 말이 아버지 없는 자식은 되기 싫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서류를 대고 “수현아, 요것만 제출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조금만 참아 봐 달라고. 어차피 이렇게 살아온 거. 왜 엄마가 나를 억지로 전산고로 넣느냐고. 내가 인문계 가도 되는데. 나는 대학가고 싶은데. 그리 공부하고 싶은데. 왜 나를 전산고 넣느냐고. 내가 취직을 하면 편부 편모면, 한쪽이 다 한 호적에 없으면 면접에서 떨어지는 애들이 몇 명 봤대요. 선배들이. 그리고 증권회사 같은데 가고 싶은데. 재산도 이 만큼 있어야되고. 엄마 아버지도 다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직장이 떴뻔해야 되고, 수입이 얼마 있어야 된다고. 증권 회사는 돈을 만지게 되면 그런 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정영숙 씨)

우리 천주교 신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엄마가 그거를 뿌리를 박았어요. 절대 이혼하면 큰 일 나는 걸로 알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지금도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평생 숨어 살았어요. 평생을 숨어살고, 욕이 아니면 말이 안돼요. 욕이 아니면 아무튼 쌍시옷 이런 게 안 들어가면 말이 안돼요. 지금 병원에서 그 때 정말 헤어지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경순 씨)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재 우리사회에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보자들과 같은 40대에게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미향 씨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두 번 이혼을 함으로써 모범적인 집안으로 소문난 자신의 친정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참고 살았다고 하였다.

어느 날 저녁에는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이제는 이혼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이혼 안하고 살려고, 이혼했다 소리 안 듣고 살라고 살아온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 내가 누를 안 끼치고 살라고 살았고, 나 이혼했다 소리 안 듣고, 두 번 이혼했다 소리 안 들으려고 산 사람이야.” (중략) 저는 두 번 이혼했다 소리 안 들으면요... 제가 참 그러고 보면 참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보수적인 데가 있는 거죠. 부모형제한테 누를 끼치는 행동을 안 하고 싶었어요. 두 번 다시. 도시서는 그게 그렇게 흉이 안되지만 시

골 가면, 우리 집 친정이 시골이에요. 시골에서는 예수 잘 믿는 모델적인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 얘기를 못 낚아서 소박 맞았다 그렇잖아요. 시골서는 그게 말이 되잖아요. 애 못 낚으면 소박 맞을 수 있는 옛날 사람들 이니까. (오미향 씨)

그러나 오랜 망설임 끝에 이혼한 제보자들은 입을 모아 ‘이혼하길 잘했다’ 고 하였다. 남편의 폭력으로 본인과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김보선 씨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친정 어머니의 말에 참고 살다가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 아이들 성격이 밝아졌고 안 맞고 사니 무엇보다 좋다고 하면서 진작 이혼을 할 걸 그랬다고 하였다. 최숙구 씨는 남편이 없는 여자에 대한 편견이나 무시하는 풍조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남편과의 이혼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비추었다.

아들은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고요. 딸은 뭐 그 때나 지금이나 뭐 별로 잘 하지는 않는데... (중략) 성격이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성격이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한마디도 안 할 정도로 대답도 안 할 정도로 그랬어요. 뭐 불려도 대답도 안 할 정도로 골만 내고 그럴 정도로. 요즘은 저가 말을 안 시켜도 저가 학교 갔다 와서 어찌고 저찌고... 하유, 입이 안 쉬어요. 이제 내 주위에서 처음에는 내가 워낙 말없이 갑자기 이혼하니까 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친정에서조차. 왜 진작에 헤어지지 그랬느냐고. 왜 그런 사람하고 살았느냐고. (김보선 씨)

(어머니가 먹여 살리는 거에 대해) 운명적이라고 생각하죠. 운명이죠. 같이 살았어도 그럴 꺼야. 바람을... 글썽... 표시 안 나게 바람을 뺐어도, 어차피 맨날 돈 타 썼을 텐데 뭐. 그 때 내가 너한테 돈 타 쓰는 것도 진짜 더럽고 치사하니까 나가라고 그 소리까지 했어. 돈도 떨어져야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랬었어요. 애들도, 애들이... 아빠를 안 찾는 이유도 하도 때려 가지고, 애들도 어렸을 때 막 집어 던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없는 게 낫지. 나, 저... 심장병 있었어요. 그 때 들어오면은 소리 질르고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남편 없으면 사람들이 깔보는 건 있지. 깔보고 돈 한 푼도 안 빌려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에이, 없는 게 나아. 맨

날 소리나 지르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낫지. 이혼할라든 가능한한 빨리 하는게 낫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혼할라든 빨리 하는 게 낫구. 괜히 들어올 꺼라구 자꾸 가망성 갖구 그러는 건 좀 어리석다고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할라구 노력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 (최숙구 씨)

#### 4. 제가 지금도 이 돈 벌어서 밥 먹고는 살지만...

남편의 수입이 없는 빈곤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장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한다. 먹고 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은행 대출, 주변사람들의 지원, 물질적인 복지혜택 수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빈곤 여성가장이 궁극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이 필수적이다. 제보자들 역시 본인들의 임금노동으로 가계를 꾸

려가고 있었는데,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력에 관계없이 대부분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보험설계사, 파출부, 우유배달원 등 모두 단순 노동직 또는 단순 기술직 등 도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도시 비공식 부문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불충분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제보자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함께 기술이 없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제보자들이 가진 직업 중 미싱사는 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나은 일로 인식되고 있었고 파출부, 식당일, 보험설계사, 미싱사 보조 등의 일을 하는 제보자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 전에 공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영숙 씨는 사무직은 젊은 여성만 찾기 때문에 구할 수 없으며, 자신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

<표 4> 제보자의 직업적 특징

이 름	결혼 전 직업 경험	결혼 후 직업 경험
김보선	간헐적으로 공장 다님	부업(조립) - 화장품 외판원 - 식당 설거지
박경숙	가출 후 공장	일 안 함 - (남편 수감 후) 보험설계사 - 공공근로 - 식당 주방일
한혜숙	가내수공업 - 은행	일 안 함 - (남편 부도 후) 책 외판원 - 사무보조 - 파출부
정영숙	공기업 사무직	남편의 의처증으로 일 못 함 - 공공근로 - 미싱사보조(가내부업)
허혜순	미싱사	부업 - 미싱사 - 공공근로 - 미싱사
최숙구	식모-가방공장-염색공장	남편이 자존심 때문에 취업 반대 - 모자챙공장 - 가방공장 - 식당일 - 보험설계사 - 유흥업소 경리 - 미싱사 보조
박명자	중학교 임시교사	남편이 취업 반대 - (남편 부도 후) 식당 카운터 - 보모 - 사무보조
이경순	종합병원 취사부	종합병원 주방일 - 파출부/봉제공장 - 견어물 장사 - 간병인 - 보험설계사(9년째)
오미향	사무 보조	파출부
나영심	잠옷공장 미싱사	전업주부 - (남편 사고 후) 여성의류 미싱사
강선숙	사무 보조	전업주부 - (남편 부도 후) 미싱사 보조 - 간병인 - 식당 서빙-호도과자 노점 - 공공근로(동사무소 사무보조)
정영선	가방공장	일 안 함 - (가출 후) 파출부 - 식당주방 - 우유배달원

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내가 월급을 지금 52만원도 받고, 53만원도 받고, 반드시 9시부터 일해가꼬 10시까지, 집에 오면 11시. 이렇게 일하면 60만원 조금 넘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없다보니 힘든 거라. 기술 배울라고 하면 고마 힘들니까 내가 생활을 못 하는 거라. 그렇기 자꾸 옮길 수 밖에 없는 거라. 조금 기본 생활이 되면서 기술을 배워서, 뭐든지 다 배울 수 있겠더라고. 그걸 내가 바라고 싶은 생각이야. (중략) 내가 또 공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절실히 느낀 게, 사람이 지금 완전히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내 혼자 판단인데 초등학교 나왔고, 많이 나오면 중학교 나왔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배울 때 그 만큼 어렵게 배웠어. 그러니까 그 안에 고정관념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 갈켜 주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잘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 (정영숙 씨)

그런데 낮은 학력이 취업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높은 학력조차도 빈곤 여성가장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박명자 씨는 대졸의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카운터, 보모, 사무보조 등 단순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대졸이라도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고 하였다.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여자가 혼자 살아 갈려면 진짜로 하나 내세울만한 전문직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력 이런 거에 관계없이 공부를 할려면, 자기 그거(학력)를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든지,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으면, 자기 혼자만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딱 두 가지로 오더라고요. 아주 건강해서 뭘 못하리 하고 딱 하든지, 저는 이것두 아니구 저것두 아니고 하늘보고 별 떨어지라고도 할 수 없고... (박명자 씨)

이처럼 제보자들에게 임금 노동은 생계와 연결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이 없으면 어떡하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미싱사 보조로 일하고 있는 정영숙 씨는 일당으로 임금이 계산되는 상

황이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단 몇 초만 놀아도 두렵고 불안하다고 밝혔다.

내가 어떻게 한달 계속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일 있으면 가고 없으면 또 나오지 말라고 하나까. 그것 땀에 더 힘든기라. 오늘도 내가, 회사 다 놀거든. 혹시나 불안하고 내일도 놀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 차라리 월급쟁이 같으면. 딱 이렇게 내가. 아 내 놀면 아 기쁘다 즐겁다 이래 되는데. 그게 안 돼. 내는 언제든지 나는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월급쟁이로... 일요일날 놀아도 내가 가뵈하게 놀고. 다른 일을 해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기라. 내 하는 일이 진짜 힘이... 공장에는... 진짜 일이 없다. 단 몇 초를 이래 하는 것이 손발 놀리고 있는 게. 싫을 수가 없어. 가장 싫다. 금방 갔다 금방 들어 줘 있으믄. 막 머 좀 그래요. 불안하지 뭐 진짜 불안해요 맨날. (정영숙)

또한 기본적으로 빈곤 여성가장들은 '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혜숙 씨의 말처럼 남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가면 그 뿐이지만 여성들은 직장 일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도 다 책임져야 하는 역할 과중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게, 내가 (실직 여성가장 교육) 수업시간에 땀땀이 친 것도 아니고, 한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내 능력, 소질이 없어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돈 벌어 먹기가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야 아침에 나가든 말든, 자기 나가버리면 끝이지만은 여자들은 다 가사노동이니, 나 같은 경우는 애들하고 나 있으니까 애들도 챙겨야지. 뭐 해야지... 뭐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덟 시가 되고. (한혜숙 씨)

특히 이러한 역할 과중의 문제는 자녀가 어린 경우에 더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즉 기혼여성의 취업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둔 빈곤 여성가장은 탁아시설의 비용 문제 및 운영시간의 제약, 그리고 무료 대리양육자의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빈곤 여성가장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박경숙 씨나 강선숙 씨처럼 대부분 자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면서 직업 선택의 폭은 더 축소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시간이 많이 있고 그러면, 취업센터 가서 좀 골라 보고 찾아보고 며칠 다니면 그런 좋은 게 걸린대요. 관리 사무소 같은 데라든가. 그런데 거기 가서 며칠씩 할애할 시간이 안 되지. 딱 한번 하루, 하루 가서 보고 오는 거밖에 안되지. 신청해놨으면 맨 저가지. 인제 공장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거기선 전화 많이 오니까. 거긴 또 거기는 조퇴가 안 돼 공장이 일단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 빠지면 안 되니까 일단 가면은 계속 해야되니까. 또 애 엄마들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집에서 애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제 어느 때 불러갈지 모르는데. 여기 식당도 손님이 많으면 못나오지. (박경숙 씨)

애가 있으니까 종일 할 수 있는 일을 못 가고요... 서빙 같은 거, 홀 더블 서빙 같은 거. 그런 거... 인제 애만 어떻게 저거 하게 봐 주는 데 뭐 확실한 저기 있으면, 그냥 늦게라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인제 짧은 걸로 가게 되고, 그런 건 파닥파닥 하니까 자꾸 성질만 나빠지게 되고 그렇거든요. 애가 인제 학교 다닐 때는 괜찮은데, 학교 안 다니는 방학 때가 켈고민이거든요? 밥을 못 차려 주니까, 차려 놓으면, 애가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고 나가버리고 노니까. (강선숙 씨)

이상과 같이 여성을 주변화하며 연령등급화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빈곤 여성가장은 가장이 아니라 여성가장이라는 이유로 역할 과중에 허덕이면서 제한된 범위의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빈곤의 여성화가 악순환되면서 본인들의 열망수준과 노동 능력과는 무관하게 박탈된 빈곤 상태에 머무르게 되며, 결국은 건강의 악화로 불행한 빈곤에 이르게 된다

## 5. 혼자만 삭이는 거죠

제보자들은 거듭되는 경제적 고난뿐만 아니라 남편의 폭력, 술 주정 등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둔 울분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누구랑 이야기할 시간도 없

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혼자만 삭인다고 밝혔다.

마음 속에 뭐라 그럴까, 울분이라 그럴까, 화, 화라 그럴까, 억울하고 그런 게 어디 가서 풀만한 데도 없고, 또 내 성격이 워낙에 이렇다보니까, 말을 할 때는 잘 하는데, 이렇게 누구랑 수다 떨 시간도 사실은 없고요, 오늘같이 이런 시간을, 만나서 이야기 할 시간조차 없어요, 사실은. 워낙에 앉아서 있고 그런 시간이. 돈 벌이 안 되도 움직여야지 뭐, 어떻게 되니까. 이제 막 그런 울분이 쌓여도, 어디 가서 시간 내서 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혼자만 삭이는 거죠. (김보선 씨)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쌓인 울분도 많고, 힘든 점도 많으며, “내가 너 때문에 눈에 흠이 들어가도 너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감고 갈 거다”는 이경순 씨의 친정 어머니의 말처럼 친정이나 시댁에서도 걱정이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관계망을 차단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망 차단 은 제보자 쪽에서 하는 경우와, 상대방 쪽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허혜순 씨나 이경순 씨는 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정이나 시댁에 부담이 될까 두려워서 스스로 관계를 차단시키고 있었다.

남동생은 인제 다른 애들하고 연락이 되는데 저하고만 안 해요. 저는 제가 혼자 살면서 없이 살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나보다 그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니까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인제 될 수 있으면 남자동생네 안 갈려고 그러죠. 애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아무래도 지가 밥 해줘야되고 힘들게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죠. (허혜순 씨)

어려우니까 도와주지 못하고 하니까 힘들어하고 미안해하고 그래도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나은 것처럼 표시 안 내고 당당하게... (이경순 씨)

반면 오미향 씨는 가까이 사는 친정 오빠조차 관계를 차단하는 경우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빠가 있는데 이려고 살아도 저희 친정식구들도 사실 저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고, 그 가까운 서초동, 그 가까운데 살면서도 제 집에 한 번을 안 오는

거예요. 제 바로 위에 오빠인데도. 참 야속했지.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와 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한번을 안 와요. (오미향 씨)

한편 남편이 부도를 낸 박명자 씨, 한혜숙 씨, 정영숙 씨 경우에는 친, 인척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부담을 준 경우가 많아서 자연히 관계가 어색해 졌다.

형제간에 돈도 끌어쓴 입장이라 그것도 참 어색하고 그랬어요. (중략) 제가 친정 쪽에 가서는 많이 기가 죽지요. 이제는 안 갈려 그러고 자꾸 피하게 되고... 그니까 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중략) 언니가 인제 엄마 아빠 돌아가셨구 언니들이 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너희 일만 가지구 연연해 할 수 없다. 니가 여기서 결정을 확실히 내려가지고 결단을 내리면 더 이상은 언니들이 간섭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구 그러면 나는 나대로 그냥 애 아빠랑 살아 볼 테니까 더 이상 걱정을 마시라고. 그러고는 인제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고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중략) 그래서 이제 언니랑 전화할 때는 맨날 건성으로 잘 지내냐 그러면 잘 지내냐 그러고 아빠도 잘 다닌다 그러고 인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박명자 씨)

이건 꿔물래야 꿔물 수 없는 거잖아요. 혈연이라는 거는... 우리 시숙들을 보면은 지내 친정. 그러니까 형님께 친정... 뭐 한 일... 한 일년에 한번씩 서울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안 와요. 전화도 안 하고... 돈 때문에 다... 등이 저 가지고요. 그래갖고 오고 가고를 안 하잖아요. (한혜숙 씨)

친정에서도 내가 집을 집어 묵어서 그러는가 아예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중략) 연락을 안 하죠. 내가. (중략) 내가 살아와 가지고 맨날 뜯으러 가니 그 꼴이 보기 싫어 가지고 이제 오기를 미워했는데 내가 인자 우유부단하게 이혼을 안 한다고 미친년 같이 이래 산다고 그랬는데... (정영숙 씨)

그리고 남편이 폭력, 술 주정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전부터 친, 인척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경순 씨 남편의 경우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은 시댁이나 친정에 기댈 데 없는 고립 상태에 있었다. 김보선 씨 경우는 이혼 후 연락도 없는 시집 식구의 무관심에 억울한 마음도 생긴다고 하였다.

시댁도 잘 살지도 않고 정도 없어요. 왜냐하면 애기 아빠 때문에 아주 미움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으니까... (중략) (친정이나 시댁이나) 기댈 데 없어요. (이경순 씨)

시집 식구들은 왜 이혼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전화도 내가 일부로 안 떼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들을 안 하더라고요. 애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은지 전화 한 통도 없어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손주가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뭐 땀에 이혼을 했는지 물어라도 보고, 너 혼자 어떻게 사니, 말이라도 해주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가서 했는가는 모르는 데 하여튼 간에 전화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오빠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를 한번 말 해줘야겠다는 게 요즘은 들더라고요. (김보선 씨)

또한 많은 여성가장들은 현재의 자신의 상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불편해 하였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지내는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상당수와 교류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특히 빈곤층으로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여성가장들은 자신의 힘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존의 사회관계망을 축소시키기도 하였다. 이경순 씨는 동창회를 가도 대화를 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피한다고 하였다. 대졸의 학력을 가진 박명자 씨도 자신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입는 자존심의 상처를 피하기 위하여 학교친구나 선후배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고 한다.

학교 때 친구들도... 동창회 같은 데 가봐도 대화를 하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안 가고... (이경순 씨)

친구도 이제 몇 번 만나기도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이제 기반이 닦이고 다 잘 나가요. 그니까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뭐 아쉬운 소리 하러온 거 같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교육방침이 또 틀리고, 다들이 돈 있는 사람이 교육시키는 그거하고... 나는 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애들은 저절로 커졌고 그 쪽에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온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애들이 엄마 생각만큼 안 좋다 그래서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박명자 씨)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빈곤 여성가장은 한국사회의 강력한 가족주의 가치관이나 상호부조 원칙에도 불구하고 친척 및 친구 등 개인적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원의 결핍과 부족은 빈곤 여성가장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빈곤 여성가장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모자가정 혜택 등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대상자가 된다. 이 연구의 제보자 중 시유지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나영심 씨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가, 많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생계비에서부터 적게는 자녀의 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었다. 그런데 복지혜택 수급의 느낌에 대해 제보자들은 연구자들의 예상이나 일반인의 인식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국 사회는 복지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이는 빈곤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복지혜택 수급에 대한 제보자들의 첫 반응은 대부분 '고맙다'는 것이었고, '행운이다'라고 하거나 더 나아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한 제보자도 있었다. 김보선 씨와 허혜순 씨는 '아이들을 고등학교도 졸업 못 시킬 줄 알았는데, 예들 학교만 다니게 해 주는 것도 고맙다', '어떻게 먹고는 살겠는데 학비가 걱정이었다. 학비가 해결되니 너무 고맙다'고 하였다. 정영숙 씨는 '생계비를 받기 전에는 높은 사람들을 욕했는데 생계비를 받고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였다.

(생계비를 받으니까) 엄마야, 내게도 이런 행운이 있는갑다. (웃으며) 행운이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 나는 받기 전에는 높으신 분들... 왜 살아가면서 국회의원 할라 하는지를 내가 모르지. 당선만 되면 돈만 떼먹고 지가 부자 되려고... 저런 나쁜 놈들 이랬는데... 내가 얼마나 욕했는데... 내가 거 나라에서 이거 받기 전에는 제발 전쟁이나 나쁜 것 싫어서, 전쟁이 나쁜 이름 싹 다 지워 버리고 내고 없고 그냥... 그런데 내가 생계비 딱 받고 보니까, 하... 나라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돌려주는구나... 나 진짜 나는 불평 안

해. 옛날에 나는 진짜 이 나라 망해버리고, 내가 응? 어차피 내가 못 살아 죽는 건 똑 같은데 있는 놈 단추를 왜 내가 구하냐고 맨날 욕을 했거든. 근데 인자는 아휴, 어쩔던가 높으신 분들이 이래 한쪽 눈을 돌려주시니 고맙다. 진짜 내 고마워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고마운 거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고맙게 얘기해 내가, 지금은 내 너무 너무 내가 고맙게 여기고... 또 뭐 해도 걱정도 없고... 뭐 (웃으면서) 나라 또 빛이 많타가이 걱정돼 내가... 또 꿩길까 싶어서... 솔직히 그런 맘도 들어요. 빛이야 많으면 아무래도 들어오는 게 좀 안 작겠느냐. (정영숙 씨)

이와 같이 제보자들은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도 아니고 나라 경제도 어렵다는데 복지 혜택을 받으니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가난 구제는 나랏님도 못 한다'는 속담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친밀한 사회관계망의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 여성가장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기대하는 것도 많지 않았다. 이들은 나와 내 가족은 내가 벌어서 살아 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며, 복지 제도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빈곤층이 복지 혜택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우려가 모든 빈곤층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보자들이 복지제도에 대해 요구사항이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불공평한 복지혜택 등으로 인해 빈곤 여성가장이 빈곤상황을 극복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선,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현존하는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빈곤 여성가장도 많았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나 의료보험비 감면 등은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여성가장이 상당수 있었다. 한쪽 눈을 실명한 박명자 씨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수급대상자가 아닌 줄 알고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수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 신고와 부적절한 기준 등으로 인해 부적합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혜택을 덜 받아도 될 사람이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시급

한 사람에게에는 빈곤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부모가 살던 흙집에서 연탄을 때며 살고 있는 나영심 씨는 시유지에 지어진 집이라 재산 가치도 없고 매매도 되지 않지만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고, 오미향 씨는 소득 허위신고로 자신에 비해 형편이 덜 어려운 사람들 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다음은 실사 없이 신고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함으로써 실제와는 달리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거나 실직을 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영숙 씨의 이야기이다.

개중에 그런 사람. 내가 볼 때는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요번에 내가 들었어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저거 작성하면서 어 사회복지과 있는 사람한테 압력이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온다는 것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거기 신문에도 나오고 마스크에도 많이 나왔어. 왜냐하면 법을 알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이혼해 가지고 또 이렇게 타 먹는 사람은 굉장히 많대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그 사람도 이런 거 떠어 오라고 하면 자기가 실지로 실직해 논다고 하고 동사무소 돈을 다 받아 먹는대요. 최고 90만원까지 안되던가요. 90만원치 다 받아 먹고 빈둥빈둥 놀고 신랑은 신랑대로 서류상은 이혼 돼 있고 또 월급 다 챙기고 이래서. 이러니까 진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직접 나와 보고 해서... (정영숙 씨)

복지 제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제보자들은 가족 내 유일한 소득원으로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자녀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보험이나 암보험, 금융기관의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굶더라도 무리를 해서 보험이나 연금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개꺼(큰딸)는 그니까 교육보험이 하나 들어져 있어요. 오백만원짜리래도 고게 태어나서 바로 두달째서 천만원짜리 들었다가 도대체 못 넣겠더라구여. 그래 갖고 다시 해약을 해 갖고 이제 오백짜리로 해 갖고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 십 년 넣으니까 끝나니까 그거라도 이제 좀 되잖아요. 굶으면 굶었지 그거는 했거든요. 저는 좀 계획 있게 쓴다고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우, 저 여자 왜 그렇게 살까' 할 정도로 제가 고지식하게 사는 방법이 그래

요. 없으면 그냥 굶고 있고 있으면 무조건 다 집어 넣으려고. (허혜순 씨)

적금은 들어가는 거 없고, 연금하고... 내꺼 연금은 죽어라고 넣어야 되니까. 연금하고... 빛은 뭐 빛은 조금 있는데. 빛은 450밖에 없어. 보험에서 끌어들이는 거. 보험에서, 연금에서 용자받은 거. 그리고... 한 달에. 또 들어가는 거 있긴 있어. 암보험. 내 꺼. 암보험 3만7천 얼마... 이제 나 죽은 다음에 애들이 나 타 먹으라고. (최숙구 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관계망과 복지제도의 지원은 빈곤 여성가장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빈곤 여성가장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여성가장의 빈곤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빈곤 여성가장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 누구도 선택하고 싶어하지 않는 열악한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논리에 의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제보자들의 삶의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빈곤 여성가장과 함께 그들의 삶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이어갔던 면접시간은 '술', '폭력', '외도', '노름', '도박', '계으름', '추위', '자살', '딸', '한(恨)', '후회', '울분' 등의 단어들이 가져다주는 느낌 때문에 한바탕 곁을 치른 기분이었다. 연구자들 역시 한국 사회에서 아들이 아니라 '딸'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의 한계를 겪어왔기 때문에, 제보자들의 한 맺힌 빈곤 여성가장이 된 과정을 담담하게만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심층면접과 질적 분석을 통해서 제보자들이 빈곤 여성가장이 되어간 삶의 과정을 찾아내었다. 제보자들의 삶에서 '빈곤'과 '여성가장'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제보자들의 생애과정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이농 인구의 도시 빈곤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 그리

고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가치관이 이들의 삶의 과정을 왜곡시켜 버렸다.

빈곤 여성가장이 된 삶의 과정은 '내 인생의 실패작은 니네 언니 학교를 못 보낸 거다' 라는 말처럼 낮은 학력으로 인해 좌절과 함께 시작된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했지만 당시 만연했던 구멍과, 여자가 배워서 무엇하냐는 남녀차별적인 부모들의 인식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업 중단은 대부분 부모의 빈곤을 세대간 전이하는 촉매 작용을 한다.

그 후 제보자들은 '동대문 시장에서 일 배웠어 요' 라는 진술처럼, 학업을 중단하고 산업의 비공식 부문 저임금 노동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제보자들이 노동현장에 가담하기 시작했던 당시 한국사회는 노동집약적인 수출지향공업화 정책으로 저임금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결혼 전에 단순 기술직과 단순 노동직에 종사하면서 부모의 빈곤을 세습한다.

이러한 제보자들의 빈곤한 삶은 '차라리 결혼을 안 했더라면 더 나왔죠'에 담겨있는 의미처럼, 가족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남편과의 결혼으로 인해 극복되지 못하고 결혼생활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제보자들이 명시한 여성가장이 된 계기는 결혼지위의 변화나 남편의 가출, 질병, 사고, 부도 등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결혼초기부터 여성가장과 마찬가지로의 생활을 하게 된다. 제보자와 남편들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비교적 박탈된 빈곤형에 속하나 남편들은 결혼 초기부터 나태한 빈곤형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과음 때문에 노동 능력마저 상실하고서 만성적 빈곤형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작된 빈곤 여성가장의 삶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이 많다. '제가 지금도 이 돈 벌어서 밥 먹고는 살지만...' 이라는 말처럼, 자녀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직종의 제약과 불안정성, 그리고 자녀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역할과중의 문제 때문에 빈곤 여

성가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항상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은 빈곤의 악순환과 맞물리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보자들은 본인의 열망 수준과 노동 능력과는 무관하게 박탈된 빈곤 상태에 머무르게 되며, 결국은 건강의 악화로 인해 불행한 빈곤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혼자만 삭이는 거죠' 라는 진술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관계망의 지원에도 제약이 되면서, 가족주의와 상호부조의 원칙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치밀어 오르는 울분과 화를 혼자 삭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삶의 과정 속에서도 빈곤 여성가장들은 자녀를 삶의 희망으로 간주하면서 삶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는 강하다. 따라서 나태한 빈곤이나 만성적 빈곤보다는 박탈된 빈곤, 불행한 빈곤에 가까운 빈곤 여성가장들의 삶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보자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복지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빈곤 여성가장이 사회관계망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만큼, 직접 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정영숙 씨를 비롯한 여러 제보자들이 지적했듯이 기술이 없어서 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고, 목전의 생계해결이 급한 빈곤층이기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교육수당을 현실화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몇몇 일하는 여성의 집에 그치고 있는 교육시설 내의 놀이방 운영도 확대하여 교육기간 동안의 육아문제를 보조하는 것도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효율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을 연계한 조직적인 취업알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 후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도 옹기그늘이 저래라 그러니 생활의 안정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그런게. 그런데 내가 조금 그런 사람들(정책 입안자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 줘... 안 그러면 최대한 생활비 줘 가면서 기술을 익혀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우리 같이 기술 없고, 돈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좀... 진짜 내가 이 일 아니면 죽는다는 소리하고 있고, 기술 뭐든지 기술 하나 배워 갖고 내 10년, 20년이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직장을 좀 알선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면 가정도 안정되고... (정영숙 씨)

빈곤 여성가장의 자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빈곤 여성가장 본인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여성가장들은 자녀를 자신의 위로자이고 의지처라고 여기는 등 자녀는 빈곤 여성가장에게 존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잘 키우고 공부시키는 것은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낮은 학력이 빈곤을 재생산시키는 요인인 만큼 빈곤 여성가장의 자녀에게 대학교육 등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세대간 빈곤의 재생산 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필수적인 과제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희망하는 복지제도로 자녀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니까 교육문제예요. 또 학원 문제 그런 거... 학교 아니고 어디서든, 저구립이라도 뭐 그런데서 방과후라도 좀 시켜줬으면... 지는 컴퓨터를 하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컴퓨터를 안 사주니까 아작... (한혜숙 씨)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비의 확충이 요구된다. 현재 빈곤 여성가장의 자녀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계층에서 빈곤의 재생산을 끊기 위해서는 18세 이후인 대학교육 지원 등이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자녀의 학비마련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장학금 제도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박경숙 씨 등은 낮은 학력으로 인해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빈곤 여성가장의 자녀가 적성을 살리면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진로 상담 및 취업알선도 필요

하다. 이와 더불어 빈곤 여성가장뿐만 아니라 한부모와 빈곤층 자녀를 위해 학교에서는 가정환경조사를 비공개 방식으로 하는 등, 소외 계층의 자녀들이 교육현장에서마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우리 지현이가 그러더라고. 진짜 지는 대개 불만이 많대요. 고1 때 생활보호대상자 손들어라 하든 손 딱 들고, 눈 감으란 소리 안 하고, 그래 갖고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봐라,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어 봐라. 진짜 엄마 나 너무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 담임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다 선생 그... 교사 자격증 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더라. (정영숙 씨)

자녀문제와 함께 빈곤 여성가장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주거문제이다. 특히 최근의 전월세값 폭등은 빈곤 여성가장의 주거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빈곤 여성가장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거관련 복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인데, 실제로 제보자들 중 정영숙 씨, 이경순 씨, 오미향 씨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환경에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경순 씨의 이야기이다.

지금은 방 두 칸 임대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작년에는 무허가 건물이 정말 머리를 감아도 막 비가 오면 다 새고 그러니까 샤워를 못 해요. 겨울이면, 화장실이 밖에 있고 밖에 공중화장실을 쓰고, 무허가 건물에, 달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철거돼요. 철거되면서 임대아파트를 받아 왔어요. 임대아파트 1300에 16만원씩 월세. 전세로 하면 3300인데 전세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처음 왔을 때 첫 날은 막 잠이 안 왔어요. 좋아 가고... 저희한테는 천국이예요. 저녁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왔다고... 이런 집에서는 나는 한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이경순 씨)

그러나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빈곤 여성가장에게는 부담스러운 상당한 액수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빈곤층을 위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은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한혜숙

씨 등의 제보자는 자녀의 탈선 가능성 등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가 모두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일반인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마련조차도 어려운 계층을 위해 주거의 질은 아파트에 비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보다 많은 빈곤층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임대아파트 가라고는 그러는데요, 그것도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임대아파트 가면은... 이동을 안 해도 양천구 무슨 쪽, 무슨 쪽, 다 구석구석에 있잖아요, 가면은, 지금 또 임대료가 세금이니 모니 관리비니, 20만원 정도가 든대요, 16만원에서 20만원, 18만원 2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 집 값 올려달라,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거는 편한데 그 대신 이제 좀 주위에서 걱정하는 게, 거기는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고, 또 맞벌이하는 거 아니면은 편모나 편부다 그러면은 뼈뿔어진 애들이 되게 많다 그렇다고, 주위의 할아버지들이 그러시드라구, 가 지구 괜히 그 착한 애들까지 버려놓으면 그거 어떡 하냐고... (한혜숙 씨)

건강문제 역시 고된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동시에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빈곤 여성가장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실제로 제보자들 중 30대 초반의 박경숙 씨를 제외한 모든 제보자가 디스크, 고혈압, 실명, 협심증, 골다공증, 만성피로 등 크고 작은 육체적 증상을 호소하였다. 즉 빈곤 여성가장이라는 상황은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건강상의 문제는 직업생활을 어렵게 함으로써 빈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이경순 씨와 같이 자신의 건강문제가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제보자도 많았다. 따라서 빈곤 여성가장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보험비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무료 건강검진이나 체육시설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뭐 내가 부를 누리고 그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아이들한테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까. 왜냐면 마음이 다 마음도 다 병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는 짐을 안겨 줄까봐 그게 제일 걱정

이예요. 나는 괜찮아요 난 아무렇게 힘들게 살아도 괜찮은데 아이들한테까지 나로 인해서 짐을 안겨 줄까봐... 내가 아파서... 그게 걱정이 되요 아프니까. 몸이 안 좋거든요 건강상태가. 저 건강. 저만 건강하면, 제가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느껴거든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는 제가 이 일 아니면 어디 가서 할 게 없어요. 이거를 그만 두고 여의도에서 우리 외삼촌이 그, 식당을 하나 하는데 그거를 같이 하자고 했었어요. 분식점음. 이들을 하고 병이 났어요. 못해요. 이거는 그래도 그냥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력이 딸리니까. 지금은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저의 건강. 제가 여기서 쓰러질까봐, 제가 어떤 때는 입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경순 씨)

마지막으로, 복지 혜택을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제보자들은 자신이 수급대상자라는 점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는데, 특히 성장기 자녀가 수급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존감이 하락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교육비 등을 후불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를 선납하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대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급 사실에 대한 사생활보호와 교육비를 선불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전달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냥 좀 그런 게... 받으면 좋긴 한데, 애들이 이래 집에만 있으니, 커오는 애들한테는 이야기 안 해 주고... 아 동사무소입니다, 뭐 사회복지관인데 뭐가 되서, 이런 식으로 좀 안 해줬으면 싶고... 좀 애들 모르게, 부모가 내가 애들에게 스스로 이야기하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했으면... 고맙긴 한데 그런 것을 애들한테만 안 해 줬으면... 애들 사춘기 때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데... 그리고 또 명절에만 되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거든. 그거 내가 늦게 오니까 못 받지. 그러게 선물이 왔는데 동사무소 오늘 받으러 오세요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애들이 우리가 거지냐고, 엄마 왜 그런 식으로 사냐고, 내가 어려워서 그러지만, 애들한테 이래 모르는 거 말하기 힘들드라고. 차라리 힘들지만

은 자기네들이 '엄마 몇 시에 오니?' 메모를 남겨 놓고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 좀 해달라던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영숙 씨)

이처럼 빈곤 여성가장의 삶은 단순히 한 여성 개인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빈곤의 문제, 여성차별의 문제 등 가족 및 사회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담겨있는 역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열린 시각을 가지고서 이들의 삶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이 주류 대 비주류의 이분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명자 씨가 이야기 한 것처럼, 자립의 열망이 강한 이들의 위엄이 지켜질 수 있는 복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없는 사람, 아픈 사람이 우선으로 어느 정도 라인까지 올라와야 이 나라가 웬만큼 사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못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의 나쁜 행위는... 갈 때까지 가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 왜 공부도 이런 교육방법을 시킬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런 교육방법을 시킬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게 다 무료로 주어지고, 그런 애들이 와서 이제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러면 청소년 문제도 좀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될 아이들이 청소년인데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너무 빈부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데에서 애들이 크니까 교육환경도 틀리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집 자식들만은 아니잖아요. 밑에서 올라온 애들도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동참을 해야 어려운 사람의 사정도 알아서 반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런 게 골고루 되려면 위는 조금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있는 사람은 조금 올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힘들어 가지고... (박명자 씨)

## ■ 참고문헌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영(2001). 한국의 산업화과정과 가족·여성. 진보평론, 7, 57-75.
-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주숙(1990).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1976-87.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 김주숙(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주희(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친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131-150.
- 김태현(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노인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99-130.
- 김태현, 조희선(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간의 가족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3, 99-129.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55-98.
- 박재홍(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 박충선, 정영숙(1997). 편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존전략과 복지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성공논총, 28(3), 393-450.
- 박혜인(1992). 현대사회와 도시 저소득층 가족. 한국가족학연구회.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7-28.
- 신화용, 조병은(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 '96 가정복지세미나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그들의 현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자료집, 7-31.
- 옥선화(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29-54.
- 옥선화, 성미애, 배희분, 이재림(2002). 빈곤 여성가장의 대처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223-243.



옥선화, 성미애, 허정원(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 여성가장의 생활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4.

정동익(1989). *도시빈민연구*. 서울: 도서출판 아침.

정문자, 이미리, 어주경(1998).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제특성과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26.

정현숙, 서동인(1996). 편부모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한국가족관계학회*. '96 가정복지세미나 늘어나는 편부모 가정-그들의 현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자료집, 37-64.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한상진(1993). *빈곤문제*. 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12-146.

Mills, C. W. (1975).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강희경, 이해찬 역(1978). *사회학적 상상력*. 서울: 홍성사.

Zaretsky, E. (1978). *Capitalism, The Family, & Life*. 김정희 옮김(1983).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서울: 한마당.

(2002년 11월 29일 접수, 2002년 1월 29일 채택)

#### 〈부록〉 재보자별 빈곤 여성가장의 삶

##### 〈제보자 1 : 김보선 씨〉

김보선 씨는 아버지가 학교를 못 다니게 하자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몸이 자주 아파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으나, 아버지가 위암 선고를 받은 후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남편과 두 달간 교제를 하고 스물 여덟 살에 결혼을 했다. 결혼 삼일 췌부터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은 자녀들도 툭, 망치, 칼 등의 연장으로 때리는 바람에 김보선 씨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가 많았고 자녀들도 정신이상 증세를 보일 정도였다. 남편은 명절에나 돈을 조금 가져올 뿐이어서 김보선 씨가 부업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았지만, 좋은 날이 있을테니 참고 살라는 친정 어머니의 말에 참고 살았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자 1998년에 자녀들을 맡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니 안 맞고 사는 것이 편하고 폭력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의 성격이 밝아진 것이 다행이지만, 자녀교육과 주거문제가 걱정거리이다. 김보선 씨는 공고에 다니는 아들과 중학생 딸, 초등학생인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하지는 못한다. 식당 주방일, 화장품 외판원 등을 하고 있으며 당노

와 합병증으로 몸이 좋지 않다.

##### 〈제보자 2 : 박경숙 씨〉

박경숙 씨는 구타가 심한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와 함께 야반도주하여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하고 공장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가진 것이 전혀 없던 남편을 만나 큰딸을 낳은 후 결혼을 했고,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회사가 큰 빚을 지면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었다.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정이 떨어지고 미워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여성가장이 되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큰딸과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작은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큰딸은 뇌성마비 환자이다. 한 때 병원비 때문에 큰딸을 버려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조숙한 큰딸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늘 마음이 아프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학교 교사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다. 박경숙 씨는 보험설계사, 공공근로 등을 하다가 지금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몸에 배어 버린 음식냄새 때문에 식당일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증졸이라는 학력 때문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제보자 3 : 한혜숙 씨〉

한혜숙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정의 사업부도로 서울로 도망을 왔다. 오빠의 소개로 여섯 살 차이가 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건축업에 종사하던 남편은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지만 집에 돈을 잘 가져오지는 않았다. 남편의 사업부도로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를 하자 한혜숙 씨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져서 목소리도 듣기 싫고 쳐다보는 눈길도 싫어졌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한혜숙 씨는 낮에는 책 외판원을 하고 밤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다. 현재는 파출부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없는 지금이 훨씬 편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지집에 사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돈이 없어서 피씨방에도 가지 못하니 답답할 뿐이다. 피로로 자녀를 돌볼 시간과 체력이 부족한 데다가 디스크로 인해 파출부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 〈제보자 4 : 정영숙 씨〉

정영숙 씨는 친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하루살이 같은 사람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고 게을러서 가끔 노동일을 했을 뿐 정영숙 씨가 살림을 꾸려 나갔다. 더욱이 남편의 의처증, 심한 폭력과 욕설, 그리고 얽혀 살던 시가에서의 구박도 견디기 힘들어지자 남편 몰래 아이들과 서울로 도망을 왔다. 정영숙 씨는 1남2녀를 두었는데 작은 딸은 생활이 힘들어서 외가에 맡겨 두었다가 중학교 배정 문제로 2000년에 서울로 데리고 왔다.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인 큰딸은 어른스럽고 공부도 잘 해서 좋은 대화상대가 되어 주지만, 외가에서 자란 둘째 딸은 성적이 나쁘고 의기소침한 성격이라 안타깝다. 정영숙 씨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때려 죽인다고 하니 겁도 나고 큰딸이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입사면접에서 불리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둘째 딸만은 이혼하라고 하지만, 아들 역시 아버지 없는 자식은 되기 싫으니 절대 이혼은 하지 말라고 성화이다. 현재 니트공장에서 미싱사 보조로 일하고 있고 집에서 머리띠 붙이는 부업을 하고 있지만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다.

## 〈제보자 5 : 허혜순 씨〉

허혜순 씨는 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남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간호원 양성소에 보내려고 하자, 가출을 해서 친구와 함께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는 동대문 시장에서 미싱일을 배웠고, 트럭을 몰고 다니며 장사를 하던 남편과 교제 두 달만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자기 하나만 편하면 되는 사람이고 굶어도 일을 안 할 사람이었기에, 어차피 혼자 벌어먹고 살아가야 될 것 같으면 남편이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했다.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딸이 있는데, 자녀는 믿어주면 비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다. 늘 먹는 것이 걱정이었었는데, IMF 때는 계속 일이 없자 '애들을 내가 맡아 갖고 굶겨 죽이나보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했다. 허리가 많이 아프고 아이들도 태어나서 줄곧 지하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자주 아프다. 지금은 양심적인 사장을 만나서 일당제이나마 꾸준히 돈을 벌고 있지만, 회사는 나이 제한이 있으니 앞으로는 파출부밖에 할 일이 없을 것 같다.

## 〈제보자 6 : 최숙구 씨〉

졸업장 받을 돈이 없어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을 정도로 친정이 가난했던 최숙구 씨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식모살이를 하러 서울에 올라왔다. 염색공장에서 만난 남편과는 임신한 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 남편은 일을 하지 못 하게 했고 곧 다른 여자가 생기더니 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여자를 바꾸어가며 바람을 피웠고, 집에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결혼 10년 후 가출을 했다. 그 때부터 최숙구 씨는 책공장, 가방공장, 보험회사, 식당, 나이트클럽 등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여성복 공장에서 미싱사 보조를 하고 있다. 남편이 가출한 지 6년 후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고, 위자료 받기 못했기 때문에 애들 대학이라도 보내려는 마음으로 양육비 소송 중이다. 실업계 고교 3학년인 딸과 1학년인 딸이 있는데 자녀들과 친구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 〈제보자 7 : 박명자 씨〉

재산이 조금 있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박명자 씨는 여자는 집에서 내조를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대학도 졸업했다. 남편의 직업과 가정형편 때문에 친정에서 결혼을 반대했지만,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보아 왔기에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결혼을 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데다가 체력도 약한 남편은 한 직장에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노는 일이 잦았다. 남편은 몇 번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했고, 의류업을 하다 부도가 나자 일을 해결하고 온다며 외국으로 간 지 10년이 넘었다. 박명자 씨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만 다니다가 식당일, 아기 보기 등을 하며 살았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한 쪽 눈을 실명했다. 자녀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있는데, 아이들이 해치워야 하는 숙제와 같은 존재로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유일한 희망인 만큼 아이들에게 그저 하나의 여자씨가 된다는 생각으로 산다. 실명과 빈혈 등 건강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것이 무척 힘에 부치는 상태이다.

## 〈제보자 8 : 이경순 씨〉

이경순 씨는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편은 결혼을 해 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서,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내가 잘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믿고 결혼을 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 술 때문에 직장도 한 달을 못 다녔고, 사업을 하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았다. 너무 힘들면 가출을 하기도 했지만, 친정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여서 이혼을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결국 남편은 술 때문에 간경화에 걸렸고, 1995년부터 수시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경순 씨는 파출부, 건어물 장사, 간병인 등을 하다가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남편을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버는 돈은 모두 병원비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협심증이 있어서 약으로 살고

있으니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이는 셋을 낳았는데 심장병이 있던 셋째는 해외입양을 시키고 말았고, 지금은 재수를 하고 있는 두 딸과 살고 있다.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이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요즘은 누가 말려도 대학을 간다는 딸의 등록금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제보자 9 : 오미향 씨〉

오미향 씨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기독교 집안에서 8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스물 다섯에 초혼을 하고 7년을 살았으나, 남편의 무정자증과 외도로 이혼을 했다. 서른 둘에 소개로 만난 남편은 딸린 자식이 없고 소박한 것 같아서 한 달만에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마자 술만 마시면 구타를 했다. 남편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을 가했고, 자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갓난아기일 때부터 아이들을 감추어 놓고 키웠다. 그러나 두 번 이혼을 해서 부모형제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았다. 남편은 노동일을 했는데,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나면 일을 못 나가니 신용이 바닥 났고 결국 일을 놓았다. 그 때부터 오미향 씨는 파출부로 일하게 되었고 하루에 세 타임을 뛰기도 할 만큼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나 남편은 과음으로 인한 식도파열 등으로 자주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도 몰래 술을 마시거나 도망을 나오기 일쑤였다. 다행히 가정폭력방지법이 생긴 다음부터 남편의 폭력은 주춤했지만 항상 아프다고 하니 돈 벌어오는 것은 포기했다. 자녀는 중학교 1학년인 딸과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두었는데, 도전적 정신을 길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키우고 있다.

## 〈제보자 10 : 나영심 씨〉

나영심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위해 상경했다. 의류공장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은 동생들 학비로 쓰라고 집으로 부쳤고, 남편은 선을 봐서 만났다. 남편은 선반/용접일을 했는데, 병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서 저축은 못 했지만 빚은 없었다. 그러

나 지난 1996년, 남편이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양쪽 발 뒤꿈치 뼈를 심하게 다친 이후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영심 씨는 10년 동안 쉬었던 봉제일을 다시 시작했다. 사고 이후 나약해진 남편은 계속 과음을 하여 속을 썩이고 있고, 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며 지내고 있다. 돈을 못 벌고 부인에게 용돈을 타 쓰니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시부모가 오래 전부터 살던 옛날 시골집같은 흙집에 살고 있는데 시유지에 지은 집이라 매매도 되지 않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나영심 씨는 재수 중인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공부를 잘 하던 아들은 남편의 사고 이후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배운 것이 적어서 그런지 아들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아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제보자 11 : 강선숙 씨〉

강선숙 씨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다. 남편은 보석 도매업을 했는데 사기를 자주 당하고 씌뽀이가 컸다. 결국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났고 빚쟁이와 경찰을 피해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와서 남편은 잡혀갔고, 시누이 집에 계속 살자니 눈치가 보여서 빚을 내 반지하 월세방으로 나왔다. 출소한 남편은 노동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며 다시 보석 도매업으로 재기를 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돈을 빌릴 궁리만 하니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 강선숙 씨는 서울에 와서 미싱사 보조, 간병인, 식당 홀서빙, 노점 등의 일을 했고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사무 보조일을 하고 있다.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과 미취학인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산만하고 밖으로만 돌아서 걱정이 다. 남편이 미우니까 애들까지 미워질 때가 있어서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큰 아들이 방학일 때가 들봐 줄 사람이 없어서 가장 힘들다.

〈제보자 12 : 정영선 씨〉

산골마을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정영선 씨는 어차피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팔자라고 생각하고 객지로 나왔다. 가방공장을 다니다가 만난 남편과 동거를 하다가 아들을 낳고 결혼을 했는데, 친정부모가 남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혼 이후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한 현장을 오래 다니지 않고 자주 옮기는 바람에 생활비를 주지 않는 일이 잦았다. 형의 구타 등 성장과정에서 맺힌 한이 많은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고, 술만 마시면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들이 크면 남편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10년을 살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출을 했다. 도망 나오던 날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영화의 탈출 장면이 따로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가정부, 식당일 등을 하다가, 가출한 지 4년 반이 지나 간경화에 걸린 남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서울로 데리고 왔는데, 걸핏하면 이사를 다니고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아이들도 마음을 엄마에게 달아서 적응하고 살기가 어려웠다. 현재는 아이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고 모범적인 큰아들은 의지가 된다. 식당일을 하다가 주부습진이 너무 심해서 권리금 200만원을 대출 받아 우유배달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전히 오후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